교계 대표 복지관, 디지털 복지문화 이끈다

서울노인, '내 손안의 복지관'
플랫폼 활용으로 스마트하게
종로노인, 역사 모은 아카이브
"회원들 간 소통 공간 되길"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

불교계 대표 노인복지관인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다채로운 프로그램 시도로 新노인 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나섰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 이하 서울노인센터)는 2월 10일 센터내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서 다양한 시니어 디지털 교육 사업을 공개하고 '스마트 복지관' 으로의 도약을 서원했다.

올해 서울노인센터는 '100만 선배 시민이 참여하고 배우고 나누는 광장' 이라는 비전 아래 자유로운 만남과 활기찬 미래가 있는 곳으로 꾸려나간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스마트 기기와 어르신들의 접점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는 이러닝 시스템 '도시락' , 어르신 스스로 건강 수치를 측정하고 복지관 행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나.비(나로부터 비상한다)' 등 플랫폼이 활용된다. 또 디지털 체험관과 메타버스 구현으로 스마트 복지관으로서의 역할 확장과 편리성을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장 희유 스님은 "센터는 언제나 가까이, 내 손안의 복지관, 내 손안에서도 척척을 기조로 플랫폼이 활용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스마트 복지관으서의 역할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개인별 고민해결을 위한 1:1 혹은 집단 상담 서비스 △인문학 아카데미 △선배 시민 자원봉사단 운영 △어르신 권익위원회 발족 △1인 독거어르신 돌봄 강화 △서울국제노인영화제(5월 11~15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올 한해를 가득 채운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도 디지털 복지문화를 이끌기 위한 다양한 시도에 나선다. 2월 15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종로노인복지관은 전국 사회복지기관 최초로 런칭한 아카이브를 공개했다. 아카이브는 종로노인복지관의 역사를 한곳에 모은 것으로 동영상과 홍보물, 간행물, 언론보도, 수상내역, 기관 방문 내역 등이 담겼다. 현재 2774건의 자료가 디지털로 변환, 업데이트가 완료된 상태다.

정관 스님은 "아카이브는 회원들이 복지관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살펴볼 수 있고 회원들과도 더욱 친밀하고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유튜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종로노인복지관은 회원들의 활동에 편리함을 더하고자 디지털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한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원패스 회원관리 시스템을 도입, 출입 등 이용절차를 간소화한다. 고위험 어르신 사물인터넷(IOT) 안부 확인 시스템을 운영,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돌봄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관 스님은 "어르신들이 현대문화에 적응,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과 함께 찾아가는 스마트봉사단을 확대 운영하고 '종로시니어디지털센터' 를 운영, 아날로그에 익숙한 어르신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 한 노인 일자리 운영 방안도 마련한다. 차세대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플러스 카페 바리스타 봉사단을 시범 운영, 자격증은 있지만 경력이 없어 카페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는 예비 시장형 일자리 참여자 인력풀을 확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유지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 외에도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스마트 건강관리 프로그램 신설 △불면증 완화 프로그램 꿀잠케어 △제4회 서울시니어연극제(11월 6~10일) △죽음준비 프로그램 블렌디드 러닝 시스템 구축 △환경 알리미 에코푸리봉사단 양성 △찾아가는 장금이 등 올 한해도 다채로운 활동을 펼친다.

조계종 대표단, 대만 불광산사 성운대사 영결식 참석

2월 13일, 정범 스님 등
성운대사 속환사바 기원


조계종 조문 대표단은 2월 13일 불광산사서 봉행된 성운대사 영결식에서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조계종이 2월 5일 원적에 든 대만 불광산사 개산종장 성운대사 영결식에 조문단을 파견,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월 13일 불광산사에서 봉행된 성운대사 영결식에 조계종 조문 대표단을 파견했다. 조계종 조문 대표단은 해외특별교구 부교구장 정범 스님, 포교부장 선업 스님, 사회국장 현우 스님 등 4명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대만 불광산사를 찾아 주지 심보 스님, 부주지 혜전 스님 등을 예방하고 애도를 표했으며 총무원장스님의 조사를 전달했다.

불광산사 주지 심보 스님은 조계종 조문 대표단에게 "성운대사는 원적에 드셨지만 평소 원하셨던 대로 다시 인간세계에 오실 것을 믿는다"면서 "성운대사는 평생 불교의 신구의 삼업(三業)을 삼호(三好)로 바꾸어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하자는 삼호운동을 펼쳤으며, 보시의 정신은 네 가지 베풂(사람들에게 신심을 주고, 희망을 주고, 편리함을 주고, 기쁨을 준다)이라는 4급(給)으로 말씀하셨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수행은 출가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출재가자 모두에게 필요하며, 지혜와 선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함을 설파하셨음을 되새겼다.

조계종 조문단 대표 정범 스님(해외특별교구 부교구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큰스님의 원적을 아쉬워하면서 조계종 대표 조문단을 보내셨다"고 밝히며 2004년 성운대사의 초청으로 종단 관계자들과 함께 불광산사를 방문해 큰스님을 접견한 기억을 회고했다.

정범 스님은 "당시 성운대사께서는 불광산사가 미국에 설립한 서래대학에 한국 스님을 모셔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다"면서 "여러 스님들이 공부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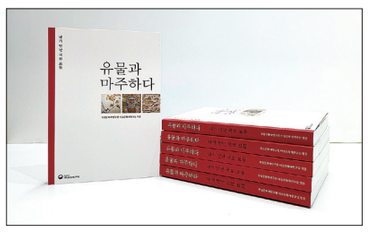
비구니회를 대표해 참석한 비구니회 회장 본각 스님은 한국 비구니 6000명을 대표해 성운대사의 원적을 애도하고 속환사바의 기도를 올렸다. 조계종 조문단 대표 정범 스님은 성운대사 영정을 찾아 조문하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조사를 대독했다. 종회의장 주경 스님 또한 조사를 보냈으며 이는 포교부장 선업 스님이 대독했다. 이밖에 성운대사의 영결식에는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송광사 지현 스님이 참석해 대사의 속환사바를 기원했다.

한편 2월 13일 오전 9시부터 불광산사에서 진행된 영결식에는 대만 총통 차잉원을 비롯 정관계, 대만 국내외 종교계 대표 및 불광산사 스님, 신도대중 약 5만 명이 참석, 차분하고 질서 있게 봉행됐다. 임은호 기자

문화재 연구자가 전한 국보·보물 이야기

국립문화재연구원 '내가 만난 국보 · 보물' 발간

문화유산 현장 조사 연구원
현장 생생한 경험담 풀어내



문화유산 덕후, 문화재 연구자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발간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국보 · 보물로 지정된 미술 · 기록 문화유산을 직접 현장 조사하는 연구자들이 집필한 〈유물과 마주하다-내가 만난 국보 · 보물〉을 발간하고, 전자책을 무료로 공개한다"고 2월 13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2006년부터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문화유산의 보존 상태와 보관 환경에 대한 정기조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는 국립문화재연구원 미술문화재연구실의 연구자들이 국보 · 보물로 지정된 미술 · 기록 유산에 대한 정기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정기조사에 나선 연구자들은 전국에 산재한 국보와 보물들의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소장자를 직접 찾아가 문화유산의 보관 상황 등을 점검 · 기록하고 조습제나 방충제 등 보존 용품을 전달한다. 정기조사의 결과는 향후 국보 · 보물의 보수 계획 수립과 국고보조사업의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책자는 미술문화재연구실 연구자들이 직접 국보와 보물을 정기 조사한 과정에서 선별한 13건의 주요 문화유산 조사 소회와 뒷이야기를 한데 모았다.

이밖에도 1원짜리 참기름 병이 국보가 된 사연, 한국전쟁 당시 목숨을 건 피난길에서 어두운 밤을 이용해 커다란 영정함 두 개를 실은 수레를 끌며 끝까지 지켜낸 후손의 노력 등 연구자들의 재미있는 현장 이야기가 많이 담겼다.

유물의 세부 모습과 조사 장면을 담은 사진을 통해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해당 유물에 관한 참고 자료도 수록해 관련 연구 성과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꾸몄다.

문화유산 정기조사 및 보존 · 관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개인 소장가, 문중, 사찰 및 전국 도서관과 박물관 등에 배포된다. 전자책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portal.nrich.go.kr)에서 볼 수 있다. 신성민 기자

장학금 재기부로 선순환 나선 동국대생

원법사, 건학위 지역 불자육성장학에 기금 전달

원법사 장학생 기부 약정
후배 장학 기금으로 활용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2월 14일 동국대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원법사 2기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 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건학위원회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은 건학위원회가 지역사찰과 동국대에 재학 중인 해당지역 학생들을 연결, 지역사회 공헌과 미래불자 육성 등 인재불사를 목표로 한다.

2021년 11월 기부로 첫 시작을 알렸던 원법사에서 두 번째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수여했다. 원법사는 동국대에 누적 1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이날 1300만원을 전달했다.

해운 스님은 동국대 재학시절 받은 장학금을 후학들에게 선순환하기 위해 졸업 후 원법사 장학회를 설립했다. 지금까지 약 3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을 모금하고 530여명의 장학생을 배출했다.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1기 원법사 장학생들의 꾸준한 발전과 활동을 토대로 계속적인 후원에 동참하기로 했다. 활동을 열심히 한 1기 장학생 4명과 신규 장학생 9명 등 총 13명이 선발돼, 1인 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또한 13명의 장학생들은 매월 1만원씩 1년 간 원법사 장학회에 재기부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동국대는 "재기부된 장학금은 차기 원법사 장학생들의 장학금으로 활용된다"면서 "장학금 선순환과 자비와 보시행의 실천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